

中國服飾에서 裘에 關한 研究*

(漢族王朝 服飾을 中心으로)

경상대 의류학과
교수 정복남

目 次

I. 序論

II. 裘의 起源 및 定義

III. 周代以後 漢族王朝 服飾에서의 裘

IV. 結論

參考文獻

I. 序論

本 研究의 對象은 裘, 즉 毛皮服이다. 毛皮服은 人類가 身體保護를 위하여 最初로 着用하였던 衣服으로서, 上古時代부터 겨울이 되면 酷寒이 長期間 계속되는 北方地域에서는 없어서는 안되었던 貴重한 衣服이었으나 織物의 生産 및 裁縫法의 發達, 保存處理의 어려움 등으로 服飾史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服飾史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에 비하여 그 研究는 筆者의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先行研究가 거의 全無하였다하고 過言이 아니다.

本稿에서는 文獻을 中心으로 당시의 裘衣制度를 包括적으로 살펴보았다.

研究內容은 裘의 起源 및 定義를 밝히고 中國에서 漢族王朝인 周, 秦, 南北朝, 隨, 唐, 宋 및 明의 服飾에서 裘衣制度를 文獻資料를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II. 裘의 起源 및 定義

1. 裘의 起源

先史時代의 人間이 무엇을 입었는지는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衣服은 有機物

質이라 石器, 도자기, 동굴벽화등과는 달리 매우 드문 경우를 除外하고는 遺物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證據는 不充分하지만 오직 직접적인 證據와 論理的인 思考를 통하여 裘의 起源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人類가 地球上에 出現했던 初期에는 人間도 類人猿등과 똑같은 모양으로 全身에 體毛가 發生하여 극심한 環境의 變化와 접촉하는 自然物등으로부터 保護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몸의 털이 退化되자 추위를 막고 몸을 保護하기 위하여 衣服을 必要로 하게되었는데, 겨울에는 그동안 잡은 動物毛皮로 몸을 감싸 保溫을 하였으며 여름에는 裸體狀態이거나 나뭇잎 등으로 가려 햇빛에 의해 病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이런 것들은 動物들이 단지 自身의 毛皮로 保護, 保溫한 것과는 區別된다. 즉 人類는 이미 動物狀態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狀態下에서 가장 原始的인 服裝이 이미 初步의인 윤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및 2>

初期의 毛皮服 形象은 切斷된 2장의 毛皮 끝에 動物의 뼈로 만들어진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動物의 힘줄을 끈으로 하여 연결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뚫린 구멍이 붙어있는 뼈바늘이 出現하면서 바느질하는 것이 可能해졌으리라고 추측되어진다. <그림 3 및 4>

北京 周口店 山頂洞人에서 한개의 뼈바늘이 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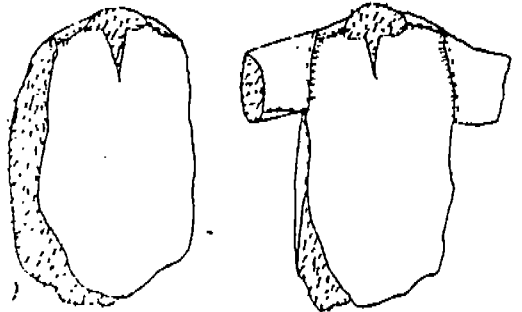
<그림 1> 毛皮 엉덩이 덮개
(小川安郎, 服飾教本, p. 4)



<그림 3> 原始服裝, 佩飾의 전시도
(中國服飾五千年, p. 14.)



<그림 2> 毛皮를 衣服材料로 利用 (小川安郎, 服飾教本, p. 4)



<그림 4> 初期 毛皮服(衣服, 第 2의 皮膚, p. 54.)



<그림 5> 沂南古墳의 畫像
(中國 古代服飾 연구, p. 2)

見된 後로 계속해서 大量으로 發掘되었는데 뼈바늘의 發見은 中國에서는 1~2만년 前後로 뼈바늘을 使用해서 動物의 毛皮를 縫製하여 衣服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게한다. 다시 時間이 흘러 돌과 陶製로 만든 紡輪이 出現하여 점차 發展된 方法으로 獸皮를 이용한 衣服을 製作하였다고 할 수 있다.¹⁾

B·C 21 世紀 경에는 中國의 傳說上의 가장 오래된 王朝인 夏가 建立되어 中國은 노예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時期는 龍山文化期에 해당한다. 이 때는 生活文化도 한층 진보하여 土器製作에는 가마에 굽는 方法이 使用되었고 服飾風도 玉이나 金屬의 팔찌, 목걸이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 文樣에도 仰韶時代의 方格紋이나 帶狀紋 외에도 雷紋, 杉綾紋, 網代紋등이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1928年 殷墟의 調查 結果 수많은 遺物들이 出土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發見은 動物의 뼈나 거북의 등판에 새겨진 中國 最古의 文字인 甲骨文의 發見이었다.²⁾ 이 甲骨文은 象形文字로 卜占을 할 때 사슴의 어깨뼈나 거북의 복갑에 새긴 것으로 이 文字의 解讀이 可能해짐에 따라 殷王朝의 歷史가 더욱 分明해졌고 帛, 絲, 桑, 蠶등을 나타내는 文字가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벌써 양잠, 견직이 行하여지고 견직물이 衣服材料로 使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衣를 「衤」, 裘를 「裘」라고 表現한 것을 보면 이미 夏, 商時代에 裘의 服飾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

“伏羲가 裘를 지었다⁴⁾.” “皇帝가 蚩尤를 征伐하려 갈 때 西王母가 부절을 주었다⁵⁾.” “禹임금이 治水事業을 마쳤을 때 하늘이 元龜를 내려주니, 渠搜國이 禹임금의 德에 감복하여 와서 珍裘을 바

쳤다⁶⁾.”는 文獻에서의 記錄은 史前 일찍부터 裘衣制度가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人間이 몸의 保護 및 保溫을 위하여 最初로 몸을 감쌌던 것은 사냥하여 얻은 動物의 毛皮였다. 즉 人間이 衣服을 만든 最初의 材料가 큰 動物의 切斷되지 않은 毛皮였으나 차츰 人間의 지혜가 發達되어 生産力이 增加되고 道具가 改良되어져 天然의 動物 毛皮를 자르고 연결하여 着用할 때는 그 要求에 의하여 자유로이 만들어졌을 것이나 그 形態는 간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人類가 뼈바늘을 만들고, 뼈바늘로서 衣服을 만들게 되면서 부터 服飾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다시 오랜 時間이 흘러 돌과 陶製로 된 紡輪이 出現하여 점차 發展된 方法으로 動物의 毛皮를 이용한 衣服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毛皮衣服의 形象을 보고 中國에서는 털이 밖에 나와 있는 形象의 글자인 裘라고 指稱한 것으로 본다.

2. 裘의 定義

一般的으로 服飾을 研究할때 제일 먼저 부딪치게 되는 것이 服飾用語에 대한 概念의 設定이다.

毛皮服은 身體의 保護를 위하여 人類가 最初로 着用하였던 衣服에서 出發하였으나 裘에 대한 記錄은 甲骨文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象形文字가 甲骨과 함아리, 古典文 등에서 發見되었다.

이러한 象形文字는 모두 길에 纈毛가 붙어있고, 皮革이 안에 있는 것의 象形이다⁸⁾.

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75, p. 3.

2) 1928年 董作賓등이 河南省 安陽縣에서 殷墟의 發掘 結果, B·C 1700年 경부터 B·C 1100年경까지의 殷王墓와 宮殿터를 發見하였음.

3) 周錫保, 앞의 책,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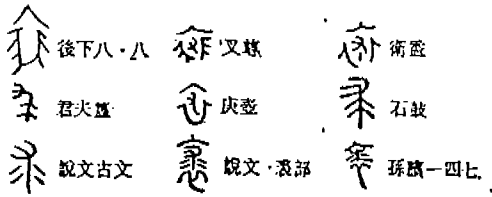
4) 陳元龍, 《格致鏡原》, 台北: 商務印書館, 1983, 卷 16, 冠服類 4, 冠服 4, 裘條.

5) 高承, 《事物紀原》, 台北: 商務印書館, 1965, 卷 3, 裘條.

6) 黃甫諱, 《帝王世紀》, 四庫全書設等 第 59 冊.

8) 周錫保, 앞의 책, p. 57.

裘⁹⁾



《字書》에서는裘의名稱을 통상袍라 하였고, 《設文解字》에서 “裘”는 가죽옷인데裘의制度는 털이 바깥쪽에 있으니 털形象을 한 것이다.” “裘는 추위를 막기위해 몸에 덮어 입는 것¹⁰⁾”이라고 하였다. 《白虎通》에서는 “裘는 保温力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옷감을 짜는 女功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平常服에 덧입는 衣服이다¹¹⁾.”라 하였다.

이상과 같은 考察 結果 裘는 防寒을 위하여 動物의 毛皮로 만든 袍形態의 덧입는 衣服이라 定義된다.

Ⅲ. 周代以後 漢族王朝 服飾에서의 裘

1. 裘衣制度

《周禮》에 司裘가 大裘를 만들어 天子에게 바치니 이것은 하늘에 祭祀드릴 때 입는 衣服이다¹²⁾.

8월에 王에게 良裘를 바치는데 王은 이를 받아 펴 깃털로서 장식한다. 9월에 司裘가 功裘를 바쳐서 王이 내려주기를 기다린다¹³⁾. 여기서 “良”字는

좋다는 말이며 良裘는 王이 입는 갓옷을 말한다. “功”字는 사람의 功力이 미비하고 거칠다는 뜻이니 狐青裘, 麋裘등의 種類를 말하는데 鄭玄은 註에서 功裘를 卿大夫가 입는 갓옷이라고 하였다.

《禮記》에 童子는 元氣가 왕성한 者이므로 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힌다면 그 元氣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裘와 솜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男·女 모두 20才가 되면 成人式을 맞이하여 男子는 冠을 쓰고 女子는 裳을 입었다. 비로소 이 때에 이르러 禮를 배우며 또한 裘와 毳단옷을 입었다¹⁴⁾. 그러나 天子, 諸侯는 12才에 冠을 하였다¹⁵⁾.

甲骨文에서의 “裘”字는 毛가 바깥쪽에 있는 形象이다. 《設文解字》에서 “古代人들은 毛로서 裘를 하였다¹⁶⁾.”라고 하였고, 《詩經》에 “羔裘는 윤기가 흘러 햇빛에 번쩍이네¹⁷⁾”, “저 都城 사람의 狐裘는 누렁기도 하네¹⁸⁾”. 라고 한 것은 毛를 밖으로 하지 않았다면 색깔이나 윤기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新書》에서 戰國時代 魏나라의 文侯가 밖에 나갔다가 길가는 사람이 裘를 뒤집어 입고 등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毛를 아끼려고 뒤집어 입는다.”고 함으로 文侯가 말하기를 “皮가 다 닳아버리면 毛가 붙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¹⁹⁾?”라고 한 것을 보면 周代에 着用한 裘는 모두 毛가 바깥쪽에 드러나도록 입었다. 즉 毳毛가 밖으로 나오게 하고 皮를 안쪽에 있게 한 것이다. 이와같이 毛를 밖으로 한 것은 漢나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宋代의 裘形象은 道衣와 비슷하였고 裘를 着用

9) 《漢語大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88.

10) 許慎，《設文解字》，台北：商務印書館，1965.

11) 《白虎通義(上)》，台北：商務印書館，國民 57, p. 364.

12) 《周禮·春官》云“司裘爲大裘以供王祀天地服”

13) 張英外，《淵鑑類函》，台北：新興書局，1983, 卷 374, 裘條.

14) 《禮記》，서울：景仁文化社篇，影印本，1975, 內則第

15) 周錫保, 앞의 책, p. 30. 再引用.

16) 許慎, 앞의 책, “裘之制 毛在外 故象毛”

17) 《詩經》，서울：景仁文化社 篇，影印本，1975. 檜風：羔裘，“羔裘如膏 日出有曜”

18) 바로 앞의 책, 小雅：都人士, “皮都人士, 狐裘黃黃”

19) 張英外, 앞의 책 卷 374, 服飾部 5, 裘 2.

때에는 毳毛가 노출 되지않아 쉽게 毛를 찾아볼 수 없었다²⁰⁾.

《五經要義》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안에 裘를 입고 緇衣로서 그것을 덮어 가리고 그 위에 朝服을 입었다. 朝會時는 朝服을 벗고서 緇衣 아래의 裘를 드러내니 이것을 일러 楊이라 한다. 楊이란 말은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름답게 입고 그 위에 朝服을 입으니 이를 일러 襲이라 한다.

大裘는 그 위에 덮어입지않고 본 바탕으로 되돌아가니 그 질박함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²¹⁾. 즉 楊하는 것은 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襲하는 것은 裘의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는 것이다²²⁾. 혹은 楊하고 혹은 襲하는 것은 禮를 행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였다. 裘위에 입는 楊衣는 그 위에 다른 옷을 입더라도 그것을 드러나게하여 楊衣의 美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겨울에는 裘를 겹옷으로 하고 楊衣를 着用하지 않으면 公門에 들어가지 않고 또 楊衣를 着用하더라도 裘를 겹옷으로 입어 楊衣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으면 또한 公門에 들어가지 않았다²³⁾. 公門에 들어감은 임금에게 入朝한다는 뜻으로 이 때는 楊衣로서 恭敬함을 나타내야 하였다. 집에서 裘를 平常服으로 着用時는 楊衣를 입지 않았으나 손님을 맞을 때는 楊衣를 着用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恭敬스럽지 못한 것으로 되었다²⁴⁾.

《白虎通》에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玄衣에 羔裘를 着用하고, 黃衣에는 狐裘를 着用한다고 했는데 많은 짐승 가운데서 오직 새끼염소와 여우의

가죽만을 取한 것은 가볍고 따뜻함을 取한 것이며, 또한 여우는 죽을 때에 고향언덕을 바라보고 죽기 때문에 君子가 根本을 잊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고, 새끼염소는 꿇어 앉아서 젖을 먹어 겸손하고 순종한다는 뜻을 取한 것이다. 그러므로 天子는 狐白裘를, 諸侯는 狐黃裘를, 大夫는 狐蒼裘를, 士는 羔裘를 着用하는 것이니, 이는 또한 尊卑를 區別하기 때문이다²⁵⁾.

孔子的 衣生活에 관해서 적은 글을 보면 겨울이 되어 裘를 着用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위에 입는 옷과 색깔을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은 옷에는 羔裘, 흰 옷에는 麋裘, 누런 옷에는 狐裘를 입었다. 冪素에 입는 裘는 길게 하였지만 오른 소매는 짧게 하였다. 이것은 오른손을 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편리한 도모한 것이다. 집에서 입는 裘는 여우나 담비같은 털이 길고 두터운 것으로 길게 만들었다. 길게 만든 것은 따뜻하도록 함이었고 집에 있으면서 손님을 접대할 때 着用하였다. 朝服이나 祭服이 아닌 옷은 반드시 풀여서 간편하게 입었다. 이러한 것은 모양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實用을 위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羔裘 玄冠으로 芻問하지 않았는데 이는 芻裘에 검은 색을 피하는 것이 당시 中國의 풍습이었기 때문이다²⁶⁾.

芻裘할 때에는 衰를 위주로 하고 美를 보임이 主가 아니기 때문에 襲하고 飾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 앞에 있을 때에는 文飾을 주로 한다. 그러므로 楊衣를 着用하여 飾을 다하는 것이다. 衣服을 襲한다는 것은 美를 덮는 것이다. 그

20) 周錫保, 앞의 책, p. 81.

21) 孔穎達, 《五經要義》, “古者著裘於內而以 緇衣覆之乃加以 朝服之時 袒期朝 服見裘裘衣覆衣謂之楊 楊之言 露可見之 辭所以示美呈好而爲飾加以朝 服謂之襲袒謂之楊 大裘不覆 反本取其質也”

22) 《禮記》, 앞의 책, 玉藻 第 13, “裘之楊也見美也, 裘之襲也充美也.”

23) 《禮記》, 앞의 책, 玉藻 第 13, “表裘不入公門 襲裘不入公門”

24) 王力著, 李泓鎮, 譯《中國古代文化常識》, 서울: 蜚雪出版社, 1989, p. 161.

25) 《白虎通義》, 앞의 책, p. 364~365.

“古者 緇衣羔裘 黃衣狐裘 禽獸衆多 獨以狐裘 何取 其暖因 狐死首邱 明君子 不充本也 羔者取其 跪乳遜順也 古天子 狐白 諸侯 狐黃, 大夫狐蒼 士羔裘 亦因別尊卑也”

26) 《論語》,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5. 第 10篇 鄉黨 6.

“緇衣羔裘 素衣麋裘 黃衣狐裘 裘衣長 短右袂 狐狗之厚 以居 羔裘玄冠 不以芻”

러므로 尸 앞에서는 襲하고 玉과 龜를 잡을 때는 襲한다²⁷⁾. 玉龜를 잡는 禮를 마치고 일이 없을 때에는 楊하여 굳이 美를 가리지 않았다²⁸⁾.

周代의 庶民들은 겨울에 개나 양의 毛皮로 만든 犬羊裘를 着用하였는데 楊衣를 입지 않았다. 이는 文飾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⁹⁾.

이상과 같은 考察에서 周代에는 男女 모두 20才가 되면 成人式을 갖고 이때 부터 비로서 裘를 着用할 수 있었다.

겨울이 되어 裘를 着用할 때는 반드시 그 위에 입는 옷과 색깔을 같게 하였다. 검은 옷에는 羔裘, 흰 옷에는 黹裘, 누런 옷에는 狐裘를 입었다. 庶民들은 犬羊裘를 입었는데 楊衣를 입지 않았다. 이는 庶民들의 옷에는 文飾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周代에는 안에 裘를 입고 繪衣로서 그것을 덮어 가리고 그 위에 朝服을 입었다 朝會時는 朝服을 벗고서 繪衣안에 있는 裘를 드러내는데 이를 楊이라고 하였으며 아름답게 입고 그 위에 朝服을 입는 것을 襲이라 하였다. 楊하고 襲하는 것은 禮를 행하는 경우에 따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周代에는 裘를 着用할 때에 毛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着用方式는 漢代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宋代에 이르러서는 毳毛가 노출되지 않아 쉽게 毛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 大裘

《周禮》에 “司裘가 大裘를 만들어 王이 하늘에

祭祀할 때의 衣服을 관장한다. 大裘冕은 天子의 六冕中에 가장 높은 緇으로 昊天上帝에 祭祀지낼 때 着用한다³⁰⁾.고 하였다. 鄭玄은 註에서 大裘는 黑羔裘인데 하늘에 祭祀 지내면서 그 바탕을 보이는 것이며 大裘 위에는 玄衣를 입었다³¹⁾.고 하였다. 王宇清도 大裘冕은 黑羔裘에 玄衣를 덧입고 아래는 纁裳을 着用하는데, 이는 天地의 色을 본뜬 것이라고 하였다³²⁾.

禮에는 素朴한 것을 가지고 貴히 여기는 것이 있다. 지극히 恭敬하는데에는 文飾이 없다³³⁾.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祭祀지낼 때는 검은색 羔裘만을 着用할 뿐이고 楊衣는 입지 않았으며 또한 禮에 옷을 盛大하게 입지 않으면 美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大裘는 楊하지 않았다³⁴⁾.

魏의 王肅은 “大裘는 黹무늬를 하였다. 그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王이 泰壇에 이르면 裘服을 벗고 裘를 입는다³⁵⁾.” 라고 하였으나 張融이 바꿔 말하기를 “王이 泰壇에 이르면 裘를 벗고 裘服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張融이 王肅을 의심해서 그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하여 陳祥道는 《禮記》에서 郊祭를 지내는 날에 王이 皮弁을 쓰고서 祭祀의 執事를 듣는다고 하였으니 祭祀 前에는 大裘를 입지 않았고, 또 大裘에는 紐가 없으니 黹裘와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說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³⁶⁾.

唐의 孔穎達은 “대라고 한 것은 天地에 祭祀 지내는 옷이기에 대라고 한 것일 뿐 裘衣의 禮가 사치스럽거나 큰것은 아니다. 四季節 언제나 하늘에

27) 執玉이란 國家의 重器인 圭璧(제후가 천자를 만날 때 갖는 홀)을 갖는 것이고 執龜亨禮庭實의 물건을 잡는 것 또는 점치는 것을 말한다.

28) 《禮記》, 앞의 책, 玉藻 第 13.

“裘地楊也 見美也 弔則襲不 盡飾也 君在則 楊裘飾也 服之襲也 充美也 是故戶襲 執玉龜襲 無事則 楊弗敢充也”

29) 《禮記》, 앞의 책, 玉藻 第 13. “犬羊裘 不楊不文飾也 不楊”

30) 《周禮·春官》云 “司裘掌爲大裘以共王祀天之服, … 祀昊天上帝則服 大裘而冕 禮五帝亦如之”

31) 鄭司農云 “大裘 黑羔裘 服以 祀示質也, … 大裘之上又有玄衣”

32)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1969, p. 146-148.

33) 《禮記》, 앞의 책, 禮器 第 10, “有以素爲貴者 至敬無文”

34) 바로 앞의 책, “禮不盛伏不充 考大裘不楊…”

35) 王肅, 《孔子家語》, 郊問.

36) 陳祥道, 《禮記》, 台北: 商務印書館, 1983, 卷 1, 大裘條, p. 18.

祭祀 지낼 때는 이 옷을 입는다³⁷⁾. 라고 하여 大裘는 보통의裘와 같다고 하였다.

宋의 陳祥道는 “裘裘는 길이가 길며 禮를 행하는裘는 길이가 짧다. 부질없이 大裘만을 입고 길이를 길게 한다면 裘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어 註에서 裘裘는 그 길이가 帶아래 1尺이고 明衣는 무릎까지 내려가니 祭祀의裘는 대개 明衣와 같다³⁸⁾. 고 하였다. 이를 보면 大裘는 그 길이가 明衣와 같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특별히 크게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考察에서 周代에 着用했던 大裘는 天子가 昊天上帝에 祭祀 지낼 때에 입는 衣服으로서 黑羔皮로 만들었다. 이는 길이가 무릎까지 내

려오는 一般的인 羔裘와 크기가 같았다. 着用法式은 無旒冕에 羔裘를 着用하고 그 위에 玄衣를 덧입었으며 아래는 纁裳과 赤舄을 着用하였다. <그림 6>

秦始皇이 中國을 統一한 後 六冕을 廢止하였다. 이때 大裘冕도 廢止하고 郊禮時 오직 衾玄之衣만 着用하였다. 後漢孝明帝 永平 2年에 輿服令을 發表하고 天子의 冕服制度를 整備하면서 大裘冕도 周代의 制度를 繼承하였다³⁹⁾.

南北朝時代 梁나라 天監 7年(A·D 508年)에 朝臣延議에 依하여 하늘에 祭祀지낼 때 大裘冕을 着用하였으나 周代의 것과는 달리 裘는 玄纁으로 製造하였다. 그 裳은 纁色으로 하였으며 모두 무늬나 繡가 없고 冕은 無旒였다⁴⁰⁾.

隋煬帝 大業 元年(A·D 605年)에 옛 制度를 분발아서 天子의 冠服을 8等級으로 定였다. 大裘를 着用時는 冕에 旒가 없고, 羔裘는 羔皮中 완전한 黑色을 取하여 만들고 同色의 比단으로서 領과 袖를 만들었다. 裳은 纁色으로 하였는데 무늬나 수식이 없었다. 赤舄을 신고 圓丘에 祭祀지낼 때와 感生帝, 封禪, 五郊, 明堂, 雩時에 着用하였다⁴¹⁾.

唐의 初期에는 隋의 制度를 踏襲하였으나 武德 4年(A·D 621年)의 衣服令에서 天地祭祀時 大裘冕을 着用하는데 冕의 넓이는 8寸, 길이는 1尺 2寸이며 無旒로 하였다. 高宗 顯慶 元年(A·D 656年) 太尉 長孫無忌등이 大裘는 冬寒季節 이외의 祭祀에는 着用이 不可能하므로 廢止하자고 奏請하여 天地郊祀時 大裘冕은 廢止하고 衾冕을 입었다. 그 후 玄宗 開元 20年(A·D 732年) 開元禮를 制定하여 天子의 官服은 새로운 制度로 바뀌게 되는데, 大裘冕은 天地神祇에 祭祀지낼 때 着用하였다. 大裘는 黑羔皮로 製作하였으나 夏季에는 葛로서 裘를 代替하였고 冕은 玄表纁裏의 無旒였다⁴²⁾.



<그림 6> 大裘冕
(三才圖會 卷4, p. 1505)

37) 孔穎達, 앞의 책, “以其祭天之服故而 大裘之非謂裘禮侈 大則義同於大射也 四時祀天”

38) 陳祥道, 앞의 책, p. 18.

裘裘長則凡行禮之裘類半果徒 服大裘而加長焉其與裘裘深異哉. 注: 裘衣帶下尺明衣長下膝則凡祭祀之裘蓋與明衣齊”

39) 周錫保, 앞의 책, p. 20.

40) 王宇清, 앞의 책, p. 20. 陳祥道, 앞의 책, p. 16.

41) 周錫保, 앞의 책, p. 21~22. 王宇清, 앞의 책, p. 162.

42) 周錫保, 앞의 책, p. 23. 王宇清, 앞의 책, p. 169.

宋代의 官服制度는 建國初期에 잠시동안은 唐의 服制를 襲承하다가 建隆 2년에 (A·D 961年) 《三禮圖》를 制定하여 禮服制度를 再整備하였고, 元豐 3년(1080)과 4년에 大裘冕에 수정을 加하여 神宗은 元豐 6년부터 비로서 大裘를 着用하고 袞에 袞冕을 덧입어⁴³⁾. 昊天上帝 및 五帝에 祭祀를 지냈다. 元祐元年(1086年) 何洵直의 건의에 따라 皇帝의 大裘冕에 黑羔皮를 除去하고 黑繪으로 하였다. 이는 夏至日에 裘를 着用하는 것이 不可함을 말하는 것이다. 冕은 12旒의 青表纁裏였다⁴⁴⁾.

宋의 陳祥道는 “王이 하늘에 祭祀지낼 때 안에는 大裘를 입고 袞에는 龍袞을 덧입는다. 禮에 옷을 盛大히 입지 않으면 不充實하므로 大裘는 楊하지 않고 龍袞을 덧입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 大羊裘는 楊하지 않고 반드시 襲하였다. 表裘不入公門이라 하였으니 반드시 楊하였던 것이다. 裘에는 楊하기만하고 襲하지않는 경우도 있고 襲하기만 하고 楊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맨 袷옷만 입고 楊이나 襲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오직 大裘만 입고서 襲하지 않는 것은 禮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안에 大裘를 입는 것은 그 自然스러움에 인한 것이고, 밖에 龍袞을 입고 冕旒冠을 쓰는 것은 그 꾸밈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꾸밈이 있으므로해서 자기의 밖으로 드러난 마음이 부지런 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自然스러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敬虔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속 마음으로 인해서 밖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自然스러움으로 인해서 꾸미는 것을 버리지 않는 그런 뒤에라야 하늘을 섬기는 禮를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그림 7>

이상과 같은 考察에서 周代의 無旒冕 羔裘, 玄衣纁裳, 赤舄을 着用하였던 大裘冕 制度는 南北朝時代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始作하였다. 즉 梁나라 때에는 羔裘의 黑羔皮를 玄繪으로 하였고, 隋나라 때에는 羔裘의 領과 袖를 玄繪으로 하였다.



見十二旒
用五百四十有四
有四纒五五米
前後各

<그림 7> 大裘冕(四庫全書, 禮書 卷1, p. 130~3)

宋代에는 元豐 6年 부터 大裘위에 袞冕을 덧입었고 元祐元年 부터 大裘冕에 黑羔皮를 除去하고 黑繪으로 하였으며, 冕은 12旒로 바뀌었다. 또한 宋의 元祐以後부터, 明代에서도 大裘冕 制度는 祭服으로서 더 이상 存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黼裘

《禮記》에 오직 임금만이 黼裘를 입고서 出軍時 맹세하고 발갈이와 추수를 돌보았다. 後世에 大裘를 입고서 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記錄하는 사람이 비난하기를 이는 옛날의 制度가 아니라고 하였다⁴⁶⁾. 왜냐하면 하늘에 祭祀하는 일은 道를 崇尚하는 것인데 大裘를 입고서 맹세하거나 發갈이와 추수를 돌보는 것은 義를 崇尚하는 것이 되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鄭玄은 註에서 黼裘는 黑羔皮에 白狐皮를 섞어서 문채를 만들고 자루없는

43) 周錫保, 앞의 책, 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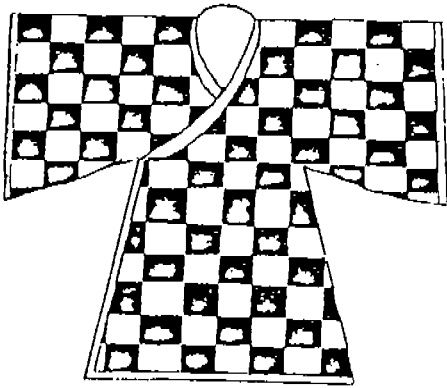
44) 王宇清, 앞의 책, p. 166.

45) 陳祥道, 앞의 책, p.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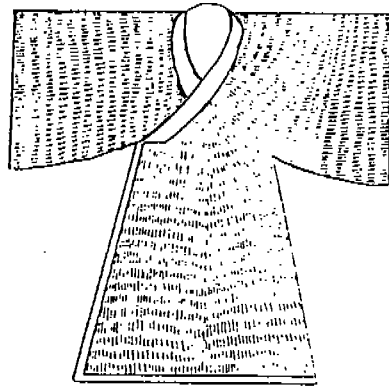
46) 《禮記》, 앞의 책, 王藻 第 13, “惟君黼裘以 誓省大裘非古也”

47) 陳祥道, 앞의 책, p. 130~75.

何則祀天尚故以大裘誓省尚義故以黼裘”



〈그림 8〉黼裘
(四庫全書, 禮書 卷12.)



〈그림 9〉天子 諸侯의 羔裘
(四庫全書, 禮書 卷12, p. 130~73)

도끼모양의 수를 놓았다고 하였는데⁴⁸⁾ 이는 陳祥道의 《禮書》에의 그림과 一致한다.〈그림 8〉

《孔子家語》에는 大裘와 黼裘를 습하여 하나로 보고 大裘는 黼무늬를 놓아서 하늘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나⁴⁹⁾ 陳祥道는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4. 羔裘

天子는 大裘를 입고서 하늘에 祭祀를 지내고 諸侯는 羔裘를 입고서 朝會를 한다. 天子와 諸侯의 裘는 全裘로 하고 袖飾을 하지않기 때문에 黑羔裘이다⁵⁰⁾. 〈그림 9〉

羔를 取하는 이유는 그것이 禮가 있기 때문이다. 陳祥道는 註에서 羔는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羶派를 만들지 않으며 젖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굶어앉아 먹어 恭遜하며 잡아도 울지않고 죽어도 울부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검은 빛깔을 取하는 것은 道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道로서 禮를 行하고 禮로서 道를 이루는데 이는 先王들이 崇尚하던 것이다. 그러나 大裘는 質을 崇尚하고 羔裘는 文이 있다⁵¹⁾. 羔裘에 緇衣를 입는 것은 朝服을 말한 것이다. 羔裘에는 玄冠으로 짝한다 하였으니 羔裘위에는 반드시 玄衣로서 楊하였고 楊衣위에는 正服을 입는데 이것 또한 검은 色이다. 玄冠과 짝을 지워 입었으므로 緇衣 羔裘는 諸侯의 君臣들이 朝會를 보는 服裝이었다⁵²⁾.

君子⁵³⁾의 羔裘는 豹皮로 소매끝을 장식하였는데, 《詩經》에 “羔裘의 소매끝을 豹皮로 장식하니 능글하고 씩씩하구나.” “羔裘에 豹皮로 소매끝을 장식하고 우리 백성을 악독하게 부리네⁵⁴⁾.”라고 하여 비유한 事物은 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르다. 德이 있는 사람은 義롭게 여기는 것은 한가지다. 羔裘를 입고 善한 일을 하면 능글하고 씩씩해 보이지만, 善하지 못한 일을 하면 포악한 것이 된다.

48) “黼裘以羔與狐白雜爲黼文”

49) 《孔子家語》 郊問, “天子大裘以黼之被裘象天”

50) 周錫保, 앞의 책, p. 51.

51) 陳祥道, 앞의 책, p. 13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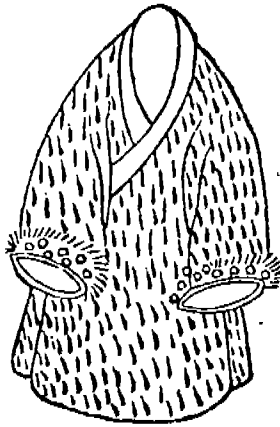
52) 孔穎達, 《語疏》, 卷 10, p. 88~89.

53) 君子는 鄉, 大夫, 士를 호칭하는 말이다.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90. p. 290.

54) 《詩經》, 앞의 책, 鄭風, “羔裘豹飾 孔武有力”, “羔裘豹飾 自我人居居”

또한 《詩經》에서 “염소 털가죽을 흰실 다섯 다래로 꾸몄네. 염소 가죽을 흰실 다섯 겹으로 꿰맸네. 염소 갓옷 술기를 다섯 겹으로 꾸몄네⁵⁵⁾.”라고 하였는데, 羔裘는 흰실로 끈을 만들어 술기의 가운데에 드리워서 꽃모양의 장식을 만든다. 그 경계에 꿰매는 線이 있고 술기의 아래와 위의 차이나는 것을 보기 좋게 하기위해 그 위에 흰실을 대었다가 그것을 모아서 豹皮로 장식하는데 이것이 大裘와 다른점이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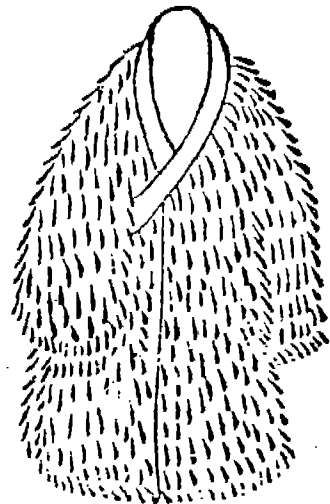
<그림 10> 君子の 羔裘 (原本詩傳, p. 38)

徐有鑣는 “羔裘는 貴하다. 어미 배 속에 있는 羊을 胞羔라 하고, (털 무늬가 대략 갖추어졌다) 갓 낳은 羊을 乳羔라 하며, (가족위의 털이 방울 모양과 비슷함) 7個月 된 것은 走羔라고 하는데 (털 무늬가 점점 퍼진다), 분만 예정일 보다 일찍 낳은 새끼양의 毛皮로 만든 것이 최상급이고 생후 일수가 짧은 것일수록 高貴한데 子羊이 성장함에 따라 공모양으로 말린 털이 퍼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⁵⁶⁾.”고 하였다.

5. 狐裘

《詩經》에 “羔裘를 입고 놀이하며 즐기고 狐裘를 입고 朝會를 한다⁵⁷⁾.”고 하여 작은 나라의 君主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政事를 처리할 때의 服裝으로 놀고 즐기며 年末 祭禮의 服裝으로 政事를 돌보는 등 行動에 절도가 없음을 걱정하고 있다.

《論語》에 “여우나 담비의 두터운 털로써 裘를 만들어 입고 燕居한다. 狐裘에는 黃衣를 입는다⁵⁸⁾.”라고 하였는데 朱子は 여우나 담비는 털이 깊어서 따스하고 두텁다. 그래서 혼자 居處할 때는 여우나 담비의 털옷이 몸에 알맞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陳祥道는 대개 여우는 의심을 잘하고 담비는 잠을 잘잔다. 의심하면 곧 경계하게되고 잠을 자면 곧 편안하니 이것은 편안히 쉬는 사람의 일이다. 그래서 燕居할 때나 大蜡, 息民할 때에 狐裘를 着用하였는데, 燕居時는 楊衣를 着用하지 않았고 大蜡나 息民時에는⁵⁹⁾ 黃衣의 楊衣를 着用하였다⁶⁰⁾. <그림 11>



<그림 11> 狐裘 (原本詩傳, p. 38)

55) 《詩經》, 앞의 책, 召南, “羔羊之皮 素絲五紵”, “羔羊之革 素絲五緘”, “羔羊之縫 素絲五總”.

56) 徐有鑣, 《林園經濟志(一)》, 서울: 保景文化社, 1983, p. 432.

57) 《詩經》, 앞의 책, 檜風, “羔裘遊遙 狐裘以朝”

58) 《論語》, 앞의 책, 第 10篇 季康, “狐貂之厚人居 黃衣狐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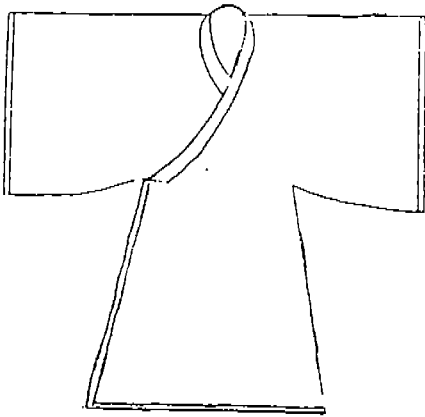
59) 蜡祭는 年末의 祭祀를 말하는데 年末에 오곡을 거두어 들인 다음 神에게 祭祀지내는 것을 大蜡라 하였다. 息民은 年末의 祖上의 祭祀나 民族의인 祭祀를 모시는 것을 말한다.

60) 王力著 李鴻鎮譯, 앞의 책, p.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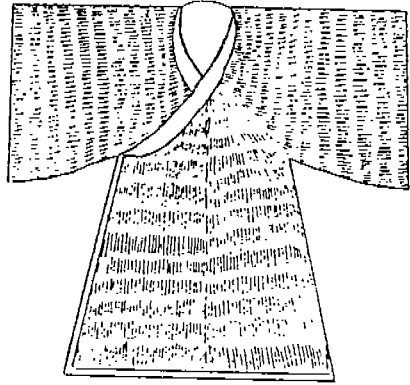


<그림 12> 狐裘 (三才圖會 卷 4. 衣服)

天子가 諸侯의 朝會를 받거나 혹은 諸侯가 天子를 알현할 때, 卿大夫가 聘問時에 狐白裘을 着用하였으며⁶⁰⁾ 또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告朔할 때에도 狐白裘을 着用하였다⁶¹⁾.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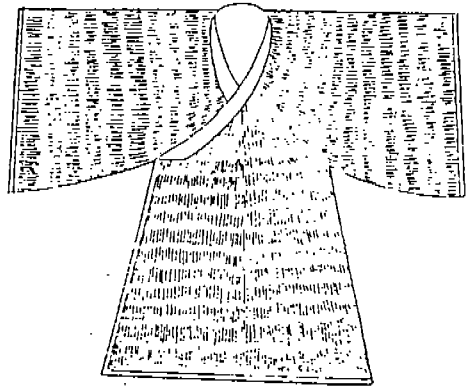


<그림 13> 狐白裘 (四庫全書, 禮書 卷13)



<그림 14> 黃衣狐裘 (四庫全書, 禮書 卷13)

인규는 狐白裘을 입을 때에 錦衣의 楊衣를 입고, 上는 狐白裘르 입지 않는다. 卿大夫는 입을 수는 있으나 다만 楊衣로서 錦衣를 입을 수 없을 따름이었다. 君子는 狐青裘에 豹皮로 소매를 하고 玄紵衣의 楊衣를 입는데 이것은 대개 上大夫가 燕居時 입을 衣服이었다⁶²⁾. <그림 15>



<그림 15> 狐青裘豹裘 (四庫全書, 禮書 卷13)

60) 《白虎通義(上)》, 앞의 책, p. 364.

“其天子視朝諸侯朝天子卿大夫聘門並服狐白裘”

61) 人君이 매달 初, 그달에 다스려질 政事를 듣고 보는 것을 聽朔한다고 하였다. 諸侯도 매달 告朔聽政을 하였다. (周錫保, 앞의 책, p. 31.)

62) 《禮記》, 앞의 책, 王藻 第 13.

“君衣狐白裘 錦衣以楊之又云士不衣 狐白是也. 卿 大夫 但 不得用錦衣”, “君子狐青裘豹裘玄紵衣以楊之蓋大夫士之燕服也”

狐白裘은 德의 完成됨을 象徵하는 것이고 狐青裘은 仁의 出發을 象徵한 것이다⁶³⁾. 그러므로 狐白裘에 錦衣로서 楊하는 것은 임금의 衣服이고, 狐青裘 以下는 大夫·士의 衣服이다. 士가 狐白裘을 입지 않았던 것은 그 德이 完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히 賤한 身分으로 貴한 衣服을 입을 수 없어서였던 것이다.

《淮南子》에 “天下에 순수하게 흰 여우는 없는데도 완전히 흰 갖옷은 있으니 이것은 여러마리에서 흰 부분을 모아서 이은 것이다⁶⁴⁾.” 라고 하였고, 《黑子》에서는 “양자강과 황하의 물은 하나의 根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千鎰의 값어치가 나가는 裘는 여우 한 마리의 흰털 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⁶⁵⁾ 狐白裘을 아주 貴한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狐白裘은 아주 貴한 것이었으나 周代의 後期, 즉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서는 周의 勢力이 날로 쇠퇴하여 짐에 따라 各 諸侯들 사이에는 이미 周의 制度를 존중하지 않았고 戰爭이 끊이지 않아 禮儀도 減損되었으며 地理上의 理由로 各國 諸侯의 기호와 사치의 정도에 따라 服飾上의 차이도 남게 되었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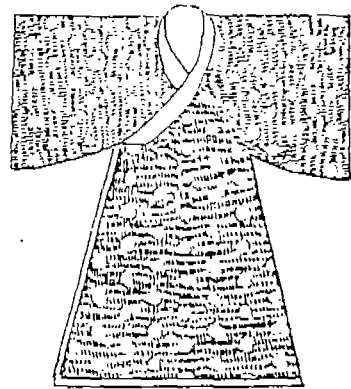
6. 鹿裘

禮에 초상이 났을 때는 움막에 거처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1년이 지나면 練服을 입고 事物을 接할 수가 있다. 이때 鹿裘을 입는다. 그 理由는 사슴은 그 무리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練服의 裘는 鹿裘로 하였다. 練服을 입게 되면 漕車를 타고 鹿皮로 만든 커튼을 치는데 그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였다⁶⁷⁾.

鹿裘은 소매를 가로로 뒀으며, 소매를 楊한다고 하였는데 소매만 楊하는 것이지 다른 옷을 楊하는 것과는 다르다. 鄭玄은 소매를 楊하는 것은 裝飾을 다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麕裘에는 青豸의 毛皮로서 소매를 하고 絞衣로서 楊衣를 하였고⁶⁸⁾, 素裘에는 素衣를 楊衣로 하였다⁶⁹⁾.

素衣麕裘은 諸侯國에서 視朔⁷⁰⁾할 때에 입는 衣服이었다⁷¹⁾. <그림 16>



<그림 16> 麕裘 青豸裘 (四庫全書, 禮書 卷13)

《韓子》에서 “魏임금이 天下를 다스릴 때 겨울에는 鹿裘을 입었고, 여름에는 감포옷을 입었다.” 하였고, 《唐書》에 이르기를 “武攸緒는 王公들이 보내준 鹿裘을 입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하며, 《唐六典》에서 “朱桃椎가 鹿裘을 입고 피를 샜으니 능히 그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鹿裘은 古代부터 上·下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衣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63) 陳祥道, 앞의 책, p. 130~180.

64) 《淮南子》說山訓云, “天下無粹白之狐, 而有粹白之裘 輒地衆白也”

65) 《黑子》曰, “江河之水 非一水源 千鎰之裘 非一狐白”

66) 周錫保, 앞의 책, p. 69.

67) 陳祥道, 앞의 책, p. 130~177.

68) 《禮記》, 앞의 책, 王藻 第 13, “麕裘青豸裘 絞衣以楊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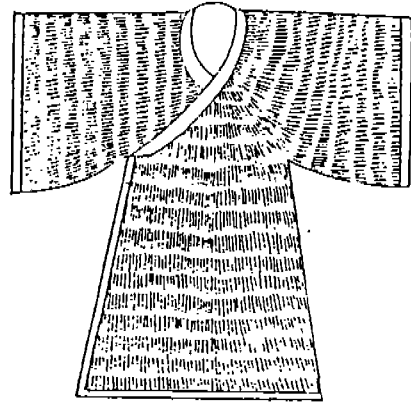
69) 《論語》, 앞의 책, 第 10篇, “素衣麕裘”

70) 視朔이란 天子로부터 月曆을 받아서 使用時 每朔하루에 사당에 가기 하는 절차를 말한다.

71) 孔穎達, 앞의 책, 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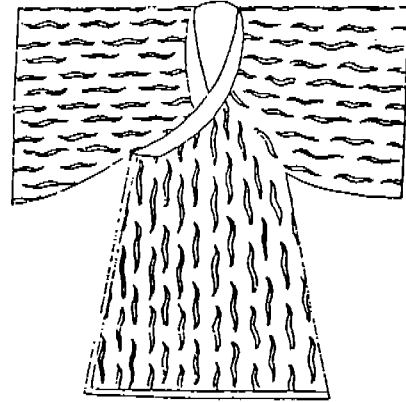
<그림 17> 鹿裘長袪 (四庫全書, 禮書 卷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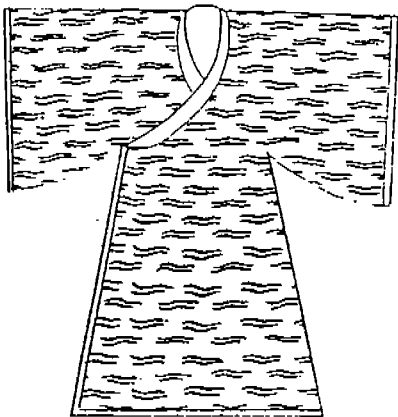
<그림 19> 狼裘黃 (四庫全書, 禮書 卷13)

7. 虎裘 및 狼裘

《禮記》에 “天子 및 諸侯의 衛士의 右隊는 虎裘를, 그 左隊는 狼裘를 입는다⁷²⁾.”고 하였다. 사람의 手足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強하며 짐승 가운데서 날새게 움켜잡는 것은 호랑이가 이리보다 앞선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虎裘를 입은 사람이 서고 왼쪽에는 狼裘를 입은 사람이 선다. 이것은 武士들이 임금을 護衛하는 方法인데 手足이 몸을 護衛하는 것과 같다. <그림 18, 19>



<그림 20> 狸裘青 (四庫全書, 禮書 卷13)



<그림 18> 虎裘黃 (四庫全書, 禮書 卷13)

임금이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그 道德의 위엄만을 가지고서는 안된다. 그래서 임금을 護衛하는 軍士를 虎士라 하고, 다니는 門을 虎門이라 하며 깃발에는 곰이나 호랑이 무늬가 있고 수레에는 호랑이를 그린 수레 뚜껑의 裝飾이 있다⁷³⁾.

《左傳》에 이르기를 “藏孫紇이 虎裘를 입고 虎駟에서 우리를 敗北시켰다.”라고 한 것을 보면 春秋時代 戎服 또한 虎裘였음을 알 수 있다.

72) 《禮記》, 앞의 책, 王藻 第 13, “君地右虎裘 厥左狼裘”

73) 陳祥道, 앞의 책, p. 130~180.

8. 其他의 裘

古代에는 貴한 裘로서는 狐白裘가 있었을 따름이었으나 後世에는 黑貂裘, 青鳳裘, 鸛鶴裘, 雉頭裘, 鶴氈裘등의 사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禮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唐代에는 桂布로 만든 木綿裘와 물총새의 깃털로서 만든 集翠裘가 있었는데, 白居易는 新制布裘라는 詩에서 桂布로 만든 裘를 노래하였고⁷⁴⁾, 則天武侯가 南海郡에서 集翠裘를 헌납받았다는 記錄이 있는데⁷⁵⁾ 峰按은 이 옷은 한 種類의 물총새 깃털로서 짜집기하여 만든 裝飾用 裘衣라고 보았다.

宋代의 여러 種類의 裘衣중에 가장 화려하고 貴重한 것은 鶴氈裘였는데 앞뒤의 옷깃이 터져 있어 말타기에 편리하였다⁷⁶⁾. 이 衣服에 관한 《世說新語》의 記錄을 보면, 王公承이 높은 수레를 타고서 鶴氈裘를 입고 있을 때 마침 微雪이 내렸다. 孟稚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神仙世界의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 옷은 품이 넓고 크면서 더우기 새의 깃털로서 만든 것이니 비를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에 펄럭이는 그러한 멋도 있었다. 後에 道家에서 白鶴을 옷 위에 수를 놓아 鶴氈衣라고도 하였으나 이것은 本來의 面目을 상실한 것이다⁷⁷⁾. 宋代 士大夫 階層이 平時에 즐겨입던 이 옷은 晉 및 南北朝時代의 文人들이 着用하였으며 宋代 以後에 와서는 소매를 넓게한 이와같은 種類의 옷을 鶴氈衣라고 하였는데, 道教에서는 羽衣라고 불렀다⁷⁸⁾.

唐·宋의 時詞가운데서 貂裘, 氈裘, 木綿裘에 관한 글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를 보면 宋代에는 貂裘를 비롯하여 흉노옷인 氈裘와 一般庶民에게는 木棉으로 만든 木綿裘등도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1. 人間이 身體의 保溫 및 保護를 爲하여 最初로 着用하였던 衣服이 動物의 毛皮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古代 中國人들은 이러한 毛皮服의 形象, 즉 털이 밖에 나와 있는 形象을 보고 裘라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殷代의 甲骨文字에서 裘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夏·商代부터 裘衣가 存在하였다고 추정하였고, 裘는 防寒을 爲하여 動物의 毛皮로 만든 袍形態의 덧입는 衣服이라고 定義하였다.

2. 周代에는 20才가 되어야 비로소 成人式을 하고 裘를 着用할 수 있었으며 毳毛가 밖으로 나오게하고 皮를 안쪽으로 하여 입었다. 이와같이 털을 밖으로 한 것은 漢 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宋代에 이르러서는 裘의 形象은 道衣와 비슷하였고 裘를 着用하였을 때 毳毛가 노출되지 않아 쉽게 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겨울에 裘를 着用할 때는 안에 裘를 입고 그 위에 楊衣로서 덮어 가리고 大禮場所에서는 楊衣위에 다시 朝服을 입었다. 朝服을 벗고 楊衣 안의 裘를 드러내는 것을 楊이라 하였고, 楊衣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 위에 다시 朝服을 입는 것을 襲이라 하였는데, 楊하고 襲하는 것을 禮에 따라 行하였다.

임금에게 入朝할 때에는 楊衣를 입었고 燕居時에는 입지 않았으나 손님을 맞을 때느 楊衣를 입었다. 天子가 하늘에 祭祀지낼 때는 楊衣를 입지 않았다. 다만 羔裘만을 입었는데 그것은 質樸함을 취한 것으로 오직 恭敬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庶民들이 犬羊裘를 입을 때도 楊衣를 입지 않았다. 이는 文飾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楊衣와 裘는 서로 그 色이 어울리게 입었는데 狐白裘에는 素錦衣, 狐青裘에는 玄綃衣, 犴裘에는

74) 周峰編著, 《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 隋唐五代部分》, 北京: p. 382.

「新制布裘」時云, “桂布白而雪 吳綿軟乾云 布重棉厚 爲裘有余溫”

75) 《集異記(卷2)》, “則天時 南海郡 獻集翠裘…”

76) 華梅, 《中國服裝史》, 北京: 天津人民出版社, 1988, p. 53.

77) 周錫保, 앞의 책, p. 143~144.

78) 周錫保, 앞의 책, p. 277~278.

絞衣, 羔裘에는 緇衣, 狐裘에는 黃衣의 楊衣를 着用하였다.

天子 및 諸侯의 裘는 袖飾을 하지 않고 全裘를 着用하였으나, 君子의 裘는 반드시 袖飾을 하였다. 羔裘에는 豹皮로 袖飾을 하였고 麋裘에는 靑豸의 毛皮로 소매를 달고 狐裘에는 豹皮로 소매를 달았다.

3. 周代에 着用했던 大裘冕은 天子가 昊天上帝와 五帝에 祭祀지낼 때 입는 衣服으로서 無旒冕에 羔裘를 着用하고 그 위에 玄衣를 덧입었으며, 纁裳과 赤舄을 착용하였다. 大裘는 黑羔皮로 만들었는데 길이는 무릎까지였다. 大裘라고 이름한 것은 天地에 祭祀지낼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大라고 하였을 뿐이고 裘의 禮가 사치스럽거나 큰 것이 아니었다.

秦始皇때 大裘冕을 廢止하고 郊禮時 오직 絢玄之衣만 着用하였고 後漢 孝明帝時 周代의 制度를 계승하여 大裘冕을 다시 着用하였다.

南北朝時代부터 大裘冕制度가 조금씩 變化되기 시작하였다. 梁나라 때는 羔裘의 黑羔皮를 玄纁으로 하였으며, 隋나라 때는 羔裘의 領과 袖를 玄纁으로 하였다. 宋代에는 元豐 6년 부터 大裘위에 袞冕을 덧입었고 元祐 元年 부터 大裘冕에 黑羔皮를 除去하고 黑纁으로 바꾸었다. 또한 冕의 垂旒도 無旒에서 12旒로 달라졌다.

4. 黼裘는 임금의 出軍時 맹세하고, 말갈이와 추수를 들볼 때 着用한 衣服이었는데 黑羔皮에 白狐皮를 섞어서 문채를 만들고 도끼모양의 무늬를 繡 놓아 만든 것이었다.

천자는 大裘를 입고서 하늘에 祭祀를 지내고, 諸侯는 羔裘를 입고서 朝會를 하였는데 羔를 取한 理由는 그것이 禮가 있기 때문이며, 검은색을 取한 것은 그것이 道에 합당하였기 때문이었다.

君子가 着用한 羔裘는 흰 실로 끈을 만들어 술기 가운데에 드리워서 꽃 모양의 장식을 만들고 豹皮로 袖飾을 하였으며, 君子가 入朝時에는 緇衣 羔裘를 着用하였다. 羔裘玄冠으로는 帶間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의 中國風習이 帶喪에는 검은색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狐白裘는 天子 및 諸侯의 衣服인데, 天子는 朝堂에 있을 때 着用하였고, 諸侯가 天子에게 入朝時, 또는 自國에 돌아가서 告朔할 때 着用하였다.

大夫는 狐白裘를 입을 수 있었으나 錦衣의 楊衣를 입을 수 없었고 士는 着用이 不可하였다. 士가 감히 狐白裘를 입지 못하였던 것은 그 德이 完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賤한 身分으로 貴한 衣服을 着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諸侯는 年末의 祭祀때 狐裘를 着用했다. 君子의 平常服에는 豹裘를 한 狐裘에 玄纁衣를 楊衣로 하고, 朔을 볼 때는 靑豸裘를 한 麋裘에 絞衣의 楊衣를 着用하였으며, 年末의 祭祀時에는 狐裘에 黃衣의 楊衣를 着用하였다. 素衣麋裘는 諸侯國에서 視朔할 때 입는 衣服이었고 鹿裘는 練服의 裘로서 着用하였다.

古代에는 狐白裘만 貴重하였으나 後世는 黑貂裘, 靑鳳裘, 鸛鷖裘, 雉頭裘, 鶴氅裘 등의 奢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禮와는 관계가 없었다.

5. 唐, 宋代부터는 木綿이 庶民들의 裘의 材料로 使用되었다. 宋代 裘의 形象은 道衣와 비슷하였고 裘를 着用하였을 때는 毳毛가 노출되지 않았고, 北方民族의 毛裘着用 風俗인 毛皮로 안을 받치고 겉을 氈이나 褐로서 만든 裘를 着用하기도 하였으나 漢族의 貴族들 사이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와같이 中國服飾에서의 裘는 天子로부터 아래로는 一般庶民들에게까지 防寒用 衣服 및 祭禮服으로서 着用되어졌다. 그러나 宋代 이후부터 大裘冕制度가 袞冕服으로 바뀌어지면서 裘는 祭禮服으로서 더이상 着用되지 않았다.

參考文獻

〈韓國書〉

- 徐有榘, 「林園經濟志(二)」, 서울: 保景文化社, 1983.
-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서울: 裕庚出版社, 1973.
- 李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 서울: 藝文出版社, 1986.
- 任明美, 「중국의 古代服飾研究(1)」, 서울: 耕春社, 1988.
- 朝鮮圖書株式會社 編, 「原本詩傳」

〈譯書〉

-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90.
-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著 이화연 譯, 「衣服, 第2의 피부」, 서울: 까치出版社 1988.
- 王力 著 李鴻鎮 譯, 「中國古代文化常識」, 서울: 螢雪文出版社, 1989.
- 이기석, 한백우 譯解, 「論語」, 서울: 弘新出版社, 1991.
- _____, 「詩經」, 서울: 弘新文化社, 1991.
- 華梅 著 朴聖實, 李秀雄 譯, 「中國服飾史」, 서울: 耕春社, 1992.

〈韓國論文〉

- 金明淑, “先史時代 뼈바늘”, 1990.
- 李蘭姬, “衣服의 起源에 대한 研究”, 複式6, 1982.
- 任榮子, “孔子的 衣, 食, 住에 대한 考察”, 世宗大論文集 9輯, 1982.

〈中國書〉

-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三國志」,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後漢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周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晉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北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舊唐書」上, 下卷」,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新唐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 「宋史 1~6卷」,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9.
- 「五代史」,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9.
- 「明史」,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9.
- 「禮記」,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5.
- 「詩經」,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5.
- 「論語」,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5.
- 「周易」,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5.
- 黃甫謐, 「帝王世紀」, 四庫全書 說符 第 59冊, 圓光大學校 出版社.
- 許慎, 「說文解字」,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賈誼, 「新書」.
- 孔穎達, 「五經要義」.
- _____, 「禮記疏」, 鈔定四庫全書, 經部

110, 台北, 商務印書館, 1983.

- 「淮南子」,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黑子」,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晏子」,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韓非子」,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左傳」,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戰國策」,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西京雜記」,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世說新語」, 四部叢刊本,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唐六典」, 四庫全書, 圓光大學校出版社.
- 「拾遺記」, 四庫全書, 圓光大學校出版社.
- 孟珙, 「蒙撻備錄」.
- 「毛詩品物圖考」, 台南: 新世紀出版社, 民國64.
- 「詩集傳」, 台北: 中華書局, 民國62.
- 陳元龍, 「格致鏡原」, 台北: 商務印書館, 1983.
- 高 承, 「事物紀原」,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沈從文編,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民國77.
- 王沂, 「三才圖會」, 台北: 成文出版社, 1970.
- 王闕任, 「儀禮服飾考」,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68.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1969.
- _____, 「中華服飾圖錄」, 台北: 世界地理社, 民國73. 1975.
- 李匡義, 「中華古今注」, 台北: 黎明文化事業公社, 1966.
- 劉熙, 「釋名」, 台北: 商務印書館, 影印本, 1983.
- 張英外, 「淵鑑類函」, 台北: 新興書局, 1982.
- 周迅, 高春明, 「中國服飾五千年」, 香港: 商務印書館分館.
- _____, 「中國歷代婦女裝飾」, 台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75.
- 「朱子家禮」, 台北: 商務印書館, 1983.
- 「中國風俗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0.

- 陳祥道,「禮書」,台北:商務印書館,1983.
- 「漢語大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88.
- 王輔世,「中國民族服飾」,香港:和平圖書有限公司,1986.
- 秦孝儀,「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編」,台北:裕台公司,民國75.
- 「白虎通義(上)」,台北:商務印書館,民國57.
〈日本書〉
- 加藤九祚,「北東 アジア民族の研究」,東京:恒門社版
- 江上疲夫,「騎馬民族國家」,東京:中央公論社,1967.
- 「圖說古代中國文化史」,東京:Design Center,1956.
- 「服飾辭典」,東京:文化出版局,1979.
- 服裝文化協會編,「服裝大百科事典」,東京,文化出版局,1976.
- _____,「服裝文化」,東京:文化出版局,1976.
- _____,「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東京:文化出版局,1979.
- _____,「東洋服裝史論攷,中世編」,東京:文化出版局,1979.
- _____,「東西の服裝史」,東京:衣生活研究會,昭和60年
- 小川安郎,「民族服飾の生態」,東京:東京書籍株式會社,1979.
- _____,「服飾教本」,東京:光生館,1974.
- _____,「服飾變遷の原則」,東京,文化出版局,昭和56年
- 原田淑人「增補,漢六朝の服飾」,東京:東洋文庫,1937.
- _____,「唐代の服飾」,東京:東洋文庫,1970.
- 井上泰男,「衣服の民族誌」,東京:文化出版局,1982.